

“익산에 노인일자리센터 건립해야”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세미나 개최... 센터 건립 필요성 공감·추진 방안 모색

익산시가 11일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춘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았다.

토론회는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박사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초청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전문 교육기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과제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세히 짚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단순형 공공 재정 일자리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가 민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전문적인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에 나선 이준섭 전북연구원 실장은 “생산성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고령자 직업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으로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가 보다 길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교육 일자리 수요는 장년층인 50대에서도 많은만큼 장기적으로는 연령

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익산시는 이미 지난해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일찌감치 센터 유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에도 지역 시의원 등이 모임 자리에서 김경 원광보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는 노인 일자리 교육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억 원을 확보해 노인 일자리 특화 작업장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네일아트부터 바리스타, 조경·원예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참가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교육은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며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익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군산군도 캠핑 인플루언서 팸투어’ 진행

30여명 참가... 관리도 백패킹·방축도 트레킹 등 ‘큰 호응’

군산시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캠핑 인플루언서와 배낭여행자(백패커) 30여 명을 모집해 고군산군도 및 K-관광심 초청 홍보 여행(팸투어)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여행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K-관광심 방축도와 고군산군도의 가치와 관광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참가자들은 사전 답사 여행 전날,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운 백사장이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거닐고 45미터 높이의 타워에서 하강하는 선유도스카이선라이프 체험, 잠자교 스카이워크를 걸으며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즐겼다. 이후 일행들은 관리도 캠핑장으로 이동해 저녁을 준비했다.

최근 관리도 캠핑장은 백패커들의 떠오르는 성지이자 해안 절벽 아래에서 즐기는 백패킹 명소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몰을 감상하며 소규모 파티를 즐기는 등 낭만이 가득한 늦가을 정취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고군산군도 섬 걷기 여행(트레킹) 1번째인 방축도로 이동하면서 시작했다. 방축도는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걷기 좋은 섬’ 10개 중 하나로 출렁다리, 독립문 바위, 인어상 등 볼거리가 가득한 섬이다.

일행은 2시간 30여 분을 걸으면서 “걷기 여행을 하며 바라다보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이 절경이다.”, “방축도의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는 독립문 바위의 경관이 무척 아름답다.”, “음식도 맛있고, 내년에 해상인도교가 개통되면 다른 섬들도 방문하고 싶다.”라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이번 여행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앞으로 관리도, 방축도 등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과 영상, 체험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는 ‘모녀의 하루’, ‘아빠와 아들의 캠핑’ 등 이색 마케팅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K-관광심 캠핑 인플루언서 팸투어도 접수 하루만에 신청자가 70명에 이르러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시는 내년도 K-관광심 홍보 이벤트를 계속 선보이고 상품화하여 많은 잠재 관광객들에게 고군산군도를 노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초청여행을 통해 “고군산군도와 K-관광심이 걷기 여행의 명소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내년에 4개의 인도교가 다 개통되면 K-관광심 고군산군도 바닷길 트레킹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발품행정 구슬땀

국회 재방문... 국가예산 확보 위한 전폭적인 협조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광복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정현을 시장이 11일 지난 8

일에 이어 다시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국민의힘 동맹의원

인 김삼욱 의원을 찾아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주요사업의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또한 익산에 연고를 가진 강경숙·김재원 의원을 찾아 △익산 내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익산 내바위성당 경관회복 사업 등을 설명하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석 의원에게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정현을 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 연내 마무리

군산시는 국가유공자 편의를 위해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군경합동묘지는 현재 만장 상태여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임신희국원 및 군산소화원 등에 안치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999기 비석 묘에 더해 23억 원을 들여 평장묘 930기를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평장묘’란 평평한 곳에 화장한 고인의 유골을 땅속에 묻어 장사해 모시는 묘지를 말한다. 이 외에도 주

차장 60면, 퍼골러 2동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영식 묘역으로 조성 계획이다.

현재 75% 정도 공정율을 보이는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사망 당시 1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국가유공자를 군경합동묘지에 이장 및 안장할 수 있다는게 기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비용을 지원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이재춘 기자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료

익산 실내체육관서 6일간 진행

익산시가 ‘2024년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27개국 279명의 정상급 선수가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이 기간 관람객들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며 대회에 열기를 더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여자 단식은 각각 쿨라부트 비티산(태국),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인도네시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복식은 이은 차아소 우이 익(말레이시아) 팀이, 여자복식은 김혜정-공희용 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남녀 혼합복식은 귀신와-전광후이



팀(중국) 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익산시는 세계배드민턴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 힘썼다.

주 경기장인 실내체육관은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선수단 숙소 확보, 경기장과 숙소 이동 등을 지원했다. 선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대회 운영은 기간 중 불편사항이 한건도 접수되지 않는 성과로 나타났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신청사 이전해 에너지 저장장치 도입

익산시가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을 비롯해 중앙제어 에너지 절약에도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야간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저장해 주간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전기사용량 폭증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청사 중앙제어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난방 온도 20℃ 이하 설정과 △전력 최고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실내·욕외조명 저녁 11시 소등을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로 고효율 LED 조명 등 설치와 점심시간 복도 격등 소등을 진행하고,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지속해서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박차

군산시는 키움옴 가뭄복합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촘촘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기존 중위소득 유형에 따라 ‘가’, ‘나’, ‘다’ 형은 이용금액의 60%, 라형은 30%를 모바일 지역화폐(정책수당)로 환급하여 지원한다.

그 결과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전년 대비(9월 말 기준) 8.7% 증가했으며, 누적 서비스 연계 건수는 16.6%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